

전남 복지시설 10곳 중 7곳 ‘노인시설’

청소년·아동·여성·장애인 관련 시설은 극히 저조

전남복지재단 분석 ... 대상·지역별 복지자원 배분 시급

전남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10곳 중 7곳이 노인시설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이나 아동, 여성, 장애인 등과 관련된 시설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 및 지역별로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근거 마련과 집행 계획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복지재단이 30일 발간한 전남복지자원 총량조사 및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482개 생활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 등 노인 관련 시설이 전체의 69.4%로 가장 많다. 이에 비해 정신

질환자공동생활가정, 노숙인자활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각 1개소에 불과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5분의 1 이상)에 진입한 전남에 최근 노인 관련 시설만 집중적으로 설립된 결과다.

시·군별로는 목포시·순천시·여수시 등 일부 시 단위에 비해 군 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자원을 지역에 배분할 때 형평성을 고려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자원봉사자는 개소당 10대의 평균 실인원이 57.6명에 달하지만 20대는 24.1명, 30대는 17명, 40대는 18.5명, 50대는 14.4명 등 고령일수록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돼야 한다는 점도 제안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생활시설은 주거환경 개선이 대체로 미흡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시설은 주거 개선 지원이 전무하다고 답해 관련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보고서는 전남 22개 시·군별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복지자원(시설·인력·재정·서비스)을 측정한 결과로, 지역 간

자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책임자인 이정아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면서 복지자원이 노인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나 노숙인·아동·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사회복지시설 신설에는 국비가 수반되는 만큼 앞으로 복지자원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김병원(왼쪽 두번째) 농협중앙회 회장과 이흥묵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직원 등이 30일 광주송정역에서 고향의 정을 듬뿍 안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귀경객들을 대상으로 ‘전남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野, 2월 국회서 18세 투표권 등 개혁입법 고삐 쥘다

경제민주화법·언론개혁·공수처 신설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 처리에 다시 고삐를 쥘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대부분을 처리하지 못한 두 야당은 2월 국회를 무대로 야권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보수성향의 바른정당에 개혁입법 동참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 입법안을 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

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우선 ‘최소실 게이트’로 드러난 정치권과 재벌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목에서는 양당의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

언론개혁을 겨냥한 이른바 ‘방송4법’ 역

시 두 당이 모두 우선 개혁과제로 꼽았다.

방송4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공수처법 제정이 공통적인 해법으로 제시됐다.

여야는 지난 25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안건 협의를 시도했지만, 개혁입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휴가 끝나는 31일께 진전된 협상안을 갖고 추가 회동에 나서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쌀·발농업·조건불리 직불금 내달부터 신청

전남도는 쌀소득보전직불금과 발농업·조건불리직불금 지급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3개월간 신청 받는다.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할 수 있고, 다만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하고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육성 자금 70억 저리 융자

전남도는 2017년 친환경농업 육성 자금 70억원을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은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옥사업 재정 지원 다음달 24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오는 2월 24일까지 한옥마을 조성 2개소, 한옥 신축 50동, 나주 전통한옥마을 지구 내 한옥 신축 29동 등 79동 규모의 ‘2017년 한옥사업’ 재정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재정지원 규모는 보조금 3000만원 이내, 융자금은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2억원이다. 전남도 누리집(실과홈페이지-건축개발과-공지사항)의 ‘2017년 한옥사업 시행 지침’을 확인하면 신청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일자리 프로젝트’사업 광역시·도 1위

전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대규모 일자리사업인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2016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주력산업인 조선·철강·석유화학의 고용위기 대책과 전략산업인 에너지산업 육성, 농수산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청년 취·창업 기반 마련 등 지역의 고용 여건을 고려해 177억원 규모의 고용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자치단체 주도의 대단위 사업 기획과 협업노력 ▲세부사업의 전략적 추진 ▲고용혁신추진단 운영 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기존 사업들을 보다 고도화하고, 취약계층 취·창업을 위한 사업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에 입주하는 관련 기업들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정찬균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종합대상, 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 국무최다 확보 및 평가 결과 전국 1위, 2017년 일자리사업 예산 전국 최고액 확보 등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 좋은 성과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美 보스턴대 연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대를 공식 방문했다고 국회사무처가 30일 전했다.

우 사무총장은 보스턴대가 주최한 VIP만찬 행사에서 ‘동북아 평화 질서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의 갈등과 북핵 문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우 사무총장은 또 보스턴대에서 유학 중인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특강을 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